창사 68년 새 역사를 써나가겠습니다
남양건설

광주매일신문

개관기념 특별할인!
품격있는 도심속 프리미엄 추모공간
(재)메모리힐즈추모공원
www.memoryhills.kr

제9290호 대표전화 (062) 650 - 2000 35 SINCE 1991 kjdaily.com 2026년 11월 11일 수요일 (음력 10월 3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본궤도…팹 배치 이달 마무리

김정관 장관 국회 예결특위 회의서 밝혀

"기업들 투자 철회 無"…후속 절차 속도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 내년 윤곽 예상

공항 이전 앞서 일부 부지 공사 검토도

무안 주민투표·전력·용수 확보 '관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핵심인 반도체 생산시설(팹·Fab) 배치 계획이 이달 중 마무리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들의 확고한 투자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팹 배치를 시작으로 산업단지 조성 협약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광주 군공항 이전과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 등 선결 과제가 적지 않아 이들 과제의 해결 여부가 실제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서구갑)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의 향후 일정을 묻자 "기업들이 팹을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며 "그 내용이 이번 달 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전체적인 상황이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며 "팹 배치 등 여러 내용이 부지런히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탐스런 대봉감 수확 대봉감 수확시기를 맞은 10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금정면 일대에서 농민들이 주황빛으로 물든 대봉감을 수확하고 있다. 대봉감은 크고 과즙이 풍부하며 후숙 과정을 거쳐 먹는 홍시로, 혈관 건강 및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졌다. /조영권 기자

특히 팹 배치에 대해서는 "다른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용인과 함께 얼마나 빨리 팹을 완성하느냐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팹 배치에 따라 산업단지 협약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투자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조 의원이 최근 기업과의 협의 과정에서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힌 사례가 있는지를 묻자 "전혀 없다"며 "기업들은 하루라도 빨리 가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부터 2027년 사이 사업의 전체적인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장관은 "지역 주민들께 가시적인 성과라고 한다면 군공항 이전과 그 내용이 배치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라며 "올해 말, 2027년 정도에는 전체 그림의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부지는 공항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탄약창 부지로 나뉘어 있다"며 "공항 이전 전이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 해당 지역에 대한 공사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제 사업 착수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방부는 지난 8월 무안군 망운면 일대를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주민투표 등 후속 절차가 지연되면서 당초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무안군은 민간공항 선(先)이전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1조원 규모 지원사업의 구체화 등을 주요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전 주변지역 지원 계획을 법과 제도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하고 있다.

주민투표와 최종 이전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사업과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고 주민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간 협의가 향후 군공항 이전 일정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공급망 구축도 풀어야 할 과제다.

전남광주시는 전력·용수 공급 실무협의체를 가동하고 관계기관과 기업들과 기반시설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급 시기와 시설 구축 일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결국 이달 팹 배치 계획이 마무리되더라도 군공항 이전과 산업단지 조성, 전력·용수 공급 등 후속 절차가 적기에 추진돼야 조기 착공과 2030년 양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은진 기자

NHN클라우드, 첨단3지구에 10㎿ AI데이터센터 짓는다

장성 남면 9천여㎡ 규모…내년 말 완공

8월 사업계획서 제출·분양 계약 마쳐

장성파인 26㎿ 임차 추진 인프라 확충

NHN클라우드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첨단3지구 장성권역에 10㎿ 규모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새로 건립한다.

자체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와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친 데 이어 장성파인 AI데이터센터 임차도 추진하면서 지역 내 AI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

10일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와 장성군 등에 따르면 NHN클라우드는 장성군 남면 삼태리 일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에 10㎿ 규모의 AI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부지는 장성군 삼태리 146-9 일원 첨단변전소 인근 9천472㎡ 규모로,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NHN클라우드는 지난 8월 말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입주 심사를 거쳐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광주도시공사와 해당 부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는 연구시설용지로, NHN클라우드는 사업계획에 대한 적격성 심사를 거쳐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NHN은 이날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광주연구개발특구에 10㎿ 규모의 자체 AI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아울러 AI 연산에 필요한 그래픽처리장치(GPU)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말까지 기존 시설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00㎿ 규모의 AI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전남광주지역에서는 장성권역 자체 데이터센터 신축과 별도로 첨단3지구에 조성 중인 26㎿ 규모의 장성파인 AI데이터센터 임차도 추진한다.

장성파인 AI데이터센터는 총사업비 3천959억원을 투입해 3만2천82㎡ 부지에 지상 6층 데이터센터와 지상 2층 운영동 등은 건립할 예정이다. 현재 공정률은 약 20%로 내년 12월 준공 목표다.

이에 따라 NHN클라우드는 첨단3지구 장성권역에서 자체 데이터센터 건립과 기존 민간 데이터센터 임차를 병행하게 된다.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 관계자는 "NHN클라우드가 첨단 3지구에 AI데이터센터를 신규 건립하기 위해 부지를 확보하고 사업계획서까지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건축계획과 착공 일정 등은 향후 기업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Today

온라인 사찰서 108배…가상공간 열풍 7면
고물가에 순금 대신 18K·14K 인기 12면
함께 걷는 길-순창 강천산 단풍길 14면

"반도체 팹 추가 대비 예비 용수도 확보"

하수 재이용시설 7천200억 국비 요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반도체 팹 4기 건설을 넘어 추가 증설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예비용수 확보에 나섰다.

10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AI반도체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상배 기후환경본부장은 "팹 4기 가동에는 하루 약 65만t의 용수가 필요하며 향후 추가 수요에 대비해 예비용수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광석 의원이 "팹이 4기에서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하수 재이용수 사용 의사를 공식 전달했다. 재이용시설 설치에는 약 7천200억원이 필요하며, 전남광주시는 국가전략사업인 만큼 국비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최명진 기자

최고의 위치!! 최대의 광고효과!!
광주 백운광장 미디어월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법인 등의 공공목적 광고와 대국민 정책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공목적 광고 및 정책홍보
최고의 입지와 가시성으로 효과 탁월
다양한 정보제공과 광고로 주목도 상승
1일 100회 이상 노출 월 3,000회 이상 노출
위치
광주 백운광장 남구청사 미디어월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1 (봉선동, 남구청)
01 광주/전남 최대의 Full Color LED전광판
▶ 다양한 화면구성으로 가시성과 주목성 탁월
02 광주/전남 최대의 교통량 및 유동인구 밀집지역
▶ 사통팔달 요충지로 광고 및 콘텐츠 전달력 탁월
03 최고의 해상도와 화면구성으로 광고효과 극대화
▶ 정보전달과 광고의 적절한 구성으로 효과 탁월
04 교차로 중심지의 대형 디스플레이로 차량, 보행자 모두에게 높은 노출 효과
▶ 백운광장 일대 교차로 통행 차량 약100,000대, 푸른길 브릿지 이용자 수 약2,000 ~ 3,000명으로 차량 승차 인원 및 보행자 등 하루 수십만명 노출 효과 추정
전광판 사진
원거리
근거리
광주매일신문 ☎ 광고문의 062) 650-2070